

함께 만들어가는 학교 교실

School Classrooms that Make Together



이 해 경 / 건축환경디자인연구소 보리 소장

Lee, Hae-Kyung / Ceo, Institute of Architectural Environment Design_Borie
hk_lee@borie.or.kr

1. 서론

우리의 인생에서 학령기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학령기의 시간을 잘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한 이유로 학령기 아이들이 많은 시간동안 머무르는 곳, 학교는 '삶을 담아내는 용기'로서 인식되어야 한다. 단순히 지식적인 가르침과 배움이 있는 기능적 공간이 아니라 또래의 친구와 인생의 선배가 함께 생각하고, 느끼며, 성장하는 또 하나의 집이며 마을인 것이다. 이와 같은 생각에서,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교육을 지원할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학교 공간 구축에 대한 새로운 모색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2. 참여설계의 배경

우리 주변의 많은 건축물은 사용자보다는 공급자의 계획과 구상으로 완성되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아파트마저도 대부분 누군가 구획해 놓은 곳에서 마감재 정도 선택할 수 있을 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학교는 어떤가. 주거공간은 그나마 마감재라도 개인적인 취향대로 선택할 수 있다지만 학교에서는 사용자로서 누릴 수 있는 선택권이란 거의 없지 않을까. 교직원과 학생 모두 불만족스러운 학교 공간에서 수년을 그저 묵묵히 견뎌낼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최근 교육부에서는 건강한 학교공간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과 시도를 하고 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 학령기

라는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기간 동안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학교공간은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결정은 비단 교육부만의 몫은 아닐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교육환경개선 및 신축 부분에 있어서 사용자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서울시 꿈담교실 사업이 대표적인 예로서 건축전문가들이 낙후된 학교환경개선을 위해 학생과 교직원의 요구를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하여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학교공간혁신사업은 건축전문가의 촉진활동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자들의 참여를 지원하고 있다.

3. 참여설계를 통한 학교 환경개선사업

학교 환경개선에서 사용자들의 참여설계를 유도하고 있는 사업은 꿈담 교실, 꾸미고 꿈꾸는 학교화장실, 학교 역사의 벽 함께 만들기 등이 있다. 본 장에서는 2015년부터 본인이 실제로 디자인 디렉터로 활동하면서 참여설계를 이끌었던 사례를 통해 참여설계의 방법과 결과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3.1 꾸미고 꿈꾸는 학교화장실 사례 : 난우중학교

2014년 서울시는 관내 초중고교생들 5,411명을 대상으로 하여 학교 화장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바 있다. 설문조사 결과 학생들의 50.5%가 학교 화장실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고, 만족하지 않는 주된 원인으로서는 비위생적인 점과 편안하지 못한 것 등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에서 출발한 학교 화장실 개선사업은 2014년부터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각 학교에 디자인 디렉터를 배정하여 사용자의 참여를 유도하면서 도질 높은 디자인을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림 1. 꾸미고 꿈꾸는 학교화장실 로고

아래의 평면도를 보면, 남자화장실과 여자화장실의 면적에서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여학생의 비율이 높은 학교의 특성 및 요구를 반영하여 결정된 것으로 참여설계를 통해 이루어진 결과로서 평가될 수 있다.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서 학생 및 교직원 모두 만족도가 높았던 사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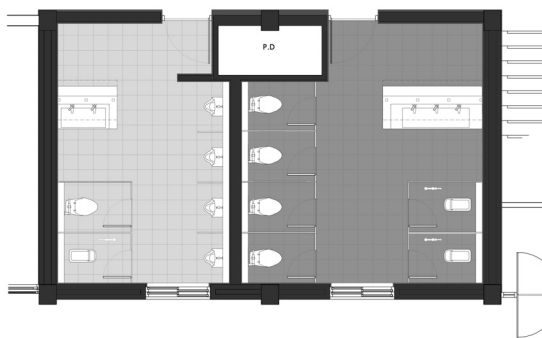


그림 2. 사용자의 요구를 통해 결정된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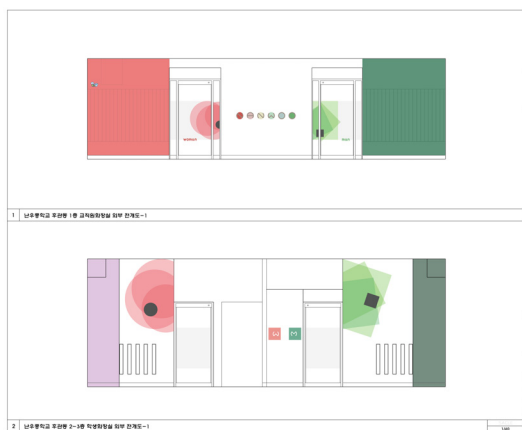


그림 3. 학교의 상징물로 디자인된 사인 및 입면

디자인 디렉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학교의 특성을 잘 살린 디자인을 끌어내는 작업이었다.

난우중학교의 교화 및 교목은 모란과 소나무였는데, 참여설계의 과정 속에서 도출된 상징체계로 화장실의 입면 및 사인을 디자인함으로써 학교 환경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만족을 높였던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3.2 역사의벽 함께 만들기 사례 : 잠실초등학교

‘우리학교 역사의 벽 함께 만들기’는 서울시 교육청이 2015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이다. 원래는 해방 70년을 기념하여 공모사업의 형태로 시작된 것인데, 오랜 역사를 가진 학교들의 호응도가 높아 본격적인 학교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본 사업 또한 교사, 학생,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여 여러 차례의 의견 수업과정을 거친 후 학교가 가진 역사적 스토리를 구성하는 방식을 취하며, 디자인 디렉터가 사용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아이디어를 디자인으로 변환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 사라진 과거의 기억을 꺼내어 현재와 미래의 모습까지 담아내는 과정이 매우 인상적인 작업이다.



그림 4. 과거에 대한 현재의 참여 또한 역사가 된다

잠실초등학교의 경우, 학교장 및 담당선생님의 관심과 학생들의 참여 그리고 학부모들의 지원이 인상깊었던 작업이었다. 재미있는 것은 학부모의 세대를 넘어 그 자녀까지도 같은 학교에 다니면서 선후배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었는데, 참여설계의 과정을 통해 아이들은 부모의 세대가 경험했던 여러 가지 사건이나 역사를 알아가게 되고 부모님 역시 지나간 시간을 소환함으로써 세대간의 소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좋은 작업이었다고 생각한다. 네 다섯번의 만남으로 진정한 참여설계가 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은 그들의 적극적인 준비와 참여 그리고 소통으로 말끔히 사라졌으며, 현재의 준비하는 모습까지도 역사가 될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다.

‘잠실’이라는 지역 명칭이 가진 의미를 통해 학교의 역



그림 5. 매년 타임캡슐을 담아낼 학교 역사의 벽 사례

사를 나비의 성장과정으로 풀어내고, 마치 나비가 되기 전 여러 단계를 거쳐가듯 참여설계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의 생각과 고민 그리고 시간을 디자인에 담아내었다. 이 작업을 통해서 느낄 수 있었던 것은 '함께 한다는 것의 저력'이었으며, 참여설계가 갖는 의미였다.

4. 미래교실 참여설계수업의 촉진활동

요즘 '학교 공간혁신'이 화두다. 학교 공간혁신은 미래교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행하는 환경사업으로 이 또한 학교 사용자의 참여설계를 중심에 두고 있다. 즉 기존 공급자 중심의 획일화된 공간을 학교의 구성원들과 함께 다양하고 유연한 공간으로 재구조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서 학생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교육활동을 통해 학습과 놀이 및 휴식이 이루어지는 학교, 그리고 학령기의 건강하고 균형 잡힌 삶의 공간으로서 학교 만들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4.1 인천광역시 미래교실 참여설계 과정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는 올해 미래교실 사업을 위해 건축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학교공간혁신 촉진자를 모집하였다. 아직까지 학교환경의 참여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나 평가가 없는 상태에서 한국교육시설학회 및 학교공간혁신지원팀은 촉진자들의 교육을 실시하고 학교별 진행되는 참여설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다양한 협의회 및 평가자문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촉진자로서 지금까지 진행된 참여설계의 과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1) 관계자 미팅 : 미래교실사업에 대한 이해
- 2) 현장 미팅 : 참여설계수업에 대한 이해
- 3) 참여수업 : 사용자 참여를 통한 설계작업

- 4) 인사이트 투어 : 디자인사례의 조사
- 5) 중간보고 : 참여설계수업을 통한 기본설계안 도출
- 6) 최종보고 : 기본설계안에 대한 발전과 보완
- 7) 실시설계 : 시공을 위한 도면 작업
- 8) 디자인 감리 : 참여설계안에 대한 감리
- 9) 사후평가 : 참여설계안에 대한 평가

이와 같이 미래교실 참여설계의 과정은 촉진자와 학교 관계자의 신뢰와 공감을 바탕으로 설계로부터 시공 그리고 평가까지 다함께 참여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본인은 현재 두 개의 학교에서 미래교실에 대한 참여설계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경험과 결과물을 이 곳에 소개하려 한다.

4.2 미래교실 사례 : 인천 석남중학교

인천석남중학교는 테크놀로지 기반의 보다 자율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는 교육환경을 위해서 컴퓨터실과 인접 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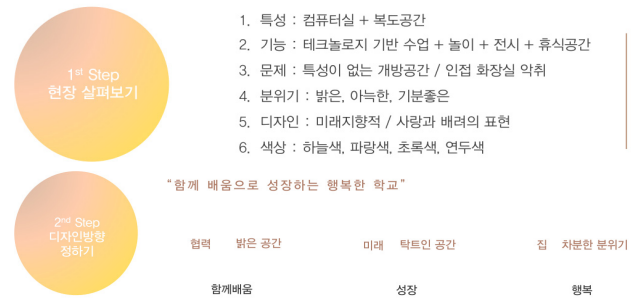


그림 6. 인천석남중학교 참여설계과정 1



그림 7. 인천석남중학교 참여설계과정 2

도공간을 개선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참여설계수업을 위해 학생, 교직원, 학부모로 이루어진 17명의 Design TF 팀이 선정되었으며, 과외로 동아리 수업과도 연계하여 보다 많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중장기적인 학교의 디자인 컨셉을 정하고자 노력하였다. 구체적인 참여설계진행과정과 디자인 결과는 그림 6, 7과 같다.

4.3 미래교실 사례 : 강화여자고등학교

강화여자고등학교의 미래교실은 복도공간이다. 비교적 넓은 복도의 양끝 공간을 이용하여 학생들이 휴식을 취하거나 독서를 하고 때로는 학습할 수 있는 다목적의 공간을 만들기를 원하였다. 참여설계수업은 디자인동아리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었으며, 참여수업을 통해 실제적인 디자이너의 직업적 체험도 병행할 수 있었다. 구체적인 참여설계진행과정과 디자인 결과는 그림 8, 9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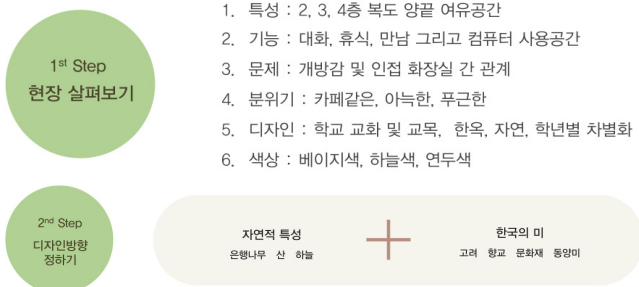


그림 8. 강화여자고등학교 참여설계과정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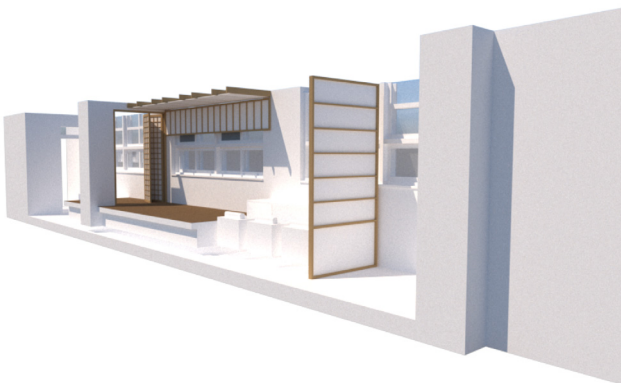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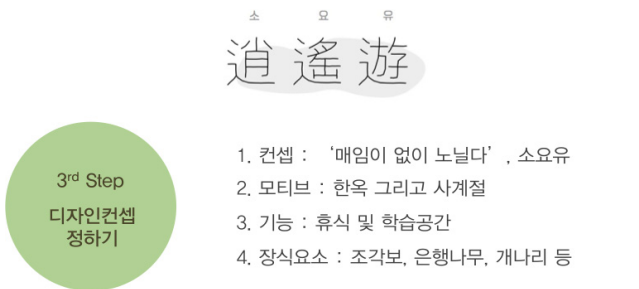


그림 9. 강화여자고등학교 참여설계과정 2

5. 맺음말

어떤 건축가는 우리의 학교건축이 교정건축과 매우 닮았다고 말했다. 어느 누구도 그의 주장에 반박할 수 없는 현실이 아쉽지만,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용자 중심의 학교환경개선사업이 더욱 더 부각되는 것일지도 모른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발달과정을 겪고 있는 학령기 아이들에게 있어서 학교의 환경이란 매우 중요하며, 그 환경에 대해 스스로 고민하고 결정하며 주체가 되는 것 또한 혁신적 교육의 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러한 학생들의 참여설계를 촉진시키는 건축전문가로서 본 사업의 일원으로 활동하는 것에 감사를 느끼며 이 글을 마친다.